



DAESHIN UNIVERSITY

大神學報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
대신대학교

• 학문으로 준비된 지도자 양성 • 경건으로 훈련된 신앙인 양성 • 사랑으로 헌신된 봉사자 양성 •

발행인 최대해 주간 이승우 편집장 엄아론 / 제54-55호 2019. 6. 7 / http://www.daeshin.ac.kr / 경북 경산시 경천로 222길 33 TEL. 053-810-0701~3

2019학년도 대신대학교 입학 · 개강 예배



2019년 3월 5일(금)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입학 ·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날은 본교 부총장인 양승혜 교수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상혁 교수가 대표로 기도하였으며, 교회실용음악학부(G#E b)가 특송을 해 주었다. 최대해 총장은 출 32:31-32절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후 신입생 대표로 신학대학원 1학년 황지훈 원우의 신입생 선서와 재단이사장 장창수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총장인 최대해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교는 학부 117명, 편입 35명, 신학대학원 58명, 대학원 16명, 목회신학원 6명 총 232명이 입학하였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교직원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많은 신입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 엄아론 편집장

대신대학교 64회, 16회 학위수여식

2019년 2월 11일(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제64회 대신대학교, 제16회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사회는 본교 운영이사장 권경찬 목사가 맡았으며, 기도예 재단이사회 회계인 박상택 장로, 성경봉독예 운영이사회 부서기 강전우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이날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마 3:15-17절을 통해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후 양승혜 교수의 학사보고가 있었고, 여러 학생들이 분야별로 상을 받았다. 최대해 총장의 훈사, 재단이사장 장창수 목사의 퇴직 교직원에게 공로패 수여식 후 치사하였고, 증경부총회장 류재양 장로의 축사와 함께 졸업생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총동창회장인 한수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으며, 학위수여를 받은 학생은 문학사(B.A.) 81명, 음악학사(B.Mus.) 19명, 신학석사(Th.M.) 12명, 문학석사(M.A.) 3명, 목회학석사(M.Div.) 51명, 목회신학원 7명 총 173명이었다.

- 엄아론 편집장



2018 사랑의 연탄 자원 봉사

2018년 12월 20일(목) 대신대학교와 달성연탄은행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하였다. 이날 25명의 학생들과 직원 및 교수들이 참여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 연탄은 대구 가창면의 한 집을 방문하여 500장을 함께 나누었다.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학생들이 자원한 이 행사에는 대신대학교 직원들 뿐 아니라 교수도 함께 참여하여 대신대학교의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작은 사랑의 나눔이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장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실천하는 마음으로 연탄을 전달했다. 자원 봉사의 인원이 많아 협력하여 큰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연탄 가루가 미세하여 장갑을 끼었지만, 손에 가득 물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환영해 주시는 이웃 주민들의 반가운 미소와 기꺼이 봉사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져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엄아론 편집장



대신대학교 방문예배

신현진 목사 방문



2019년 3월 6일(수)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남부교회 원로목사, 전 대신대학교 운영이사장인 신현진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운만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양승혜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신현진 목사는 출17:8-16절을 본문으로 "삶은 행복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박달수 목사 방문



2019년 3월 7일(목)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부산CCC대표이신 박달수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상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성빈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박달수 목사는 창17:1-8절을 본문으로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윤성권 목사 방문



2019년 3월 8일(금)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동제일교회 담임이신 윤성권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병일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서길수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윤성권 목사는 막1:35-39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홍승철 목사 방문



2019년 3월 12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산격교회 담임이신 홍승철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세홍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광수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홍승철 목사는 요17:1-5절을 본문으로 "영광의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정연철 목사 방문



2019년 3월 13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양산삼양교회 담임이신 정연철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승우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이재경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정연철 목사는 롬12: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쓰심에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전재규 명예총장 방문



2019년 3월 22일(금)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전재규 본교 명예총장님이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운만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김은경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전재규 명예총장은 마21:9절을 본문으로 "호산나와 만세삼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창림 목사가 방문



2019년 3월 26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동신교회 원로목사이시자 전 대신대학교 부총장이신 김창림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오정환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남성진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김창림 목사는 빌4:13절을 본문으로 "힘을 기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안 민 총장 방문



2019년 3월 27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고신대학교 안 민 총장이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상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육수근 교수가 수고하였다. 이날 안 민 총장은 마태복음 22장34-40절을 본문으로 "교회의 핵심가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총회 군중 선교회 방문



2019년 4월 2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총회 군중 선교회에서 본교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오광중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박장희 장로가 수고하였다. 이날 김동식 목사는 디모데후서 2장3-4절을 본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그리고 축도는 신현진 목사가 수고해 주셨다. 또한 군선교사 파송 협조와 총회 군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이흥식 목사 방문



2019년 4월 3일(수)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평산교회 이흥식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세홍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이흥식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노진준 목사 방문



2019년 4월 4일(목) 본교 호수관 5층 세미나실에서 LA한길교회 노진준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김찬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총무가 수고하였다. 이날 노진준 목사는 다니엘 6장 10-16절을 본문으로 "저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서정호 목사 방문



2019년 4월 5일(목)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백항목교회 서정호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상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서기가 수고하였다. 이날 서정호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본교를 위한 소정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최광락 목사 방문



2019년 4월 9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구미강동교회 최광락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홍 철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회계가 수고하였다. 이날 최광락 목사는 출애굽기 14장 26-31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와 손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안주훈 총장 방문



2019년 4월 10일(수)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울장신대학교 안주훈 총장이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운만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신앙부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안주훈 총장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본문으로 "죽어야 사는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정명식 목사 방문



2019년 4월 11일(목)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호산나교회 정명식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상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2학년 과대표가 수고하였다. 이날 정명식 목사는 요한복음 20장 19-23절을 본문으로 "찾아오신 부활 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본교에 본교발전기금을 주시어 감사장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대신대학교 총동창회 본교 방문



2019년 4월 23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신대학교 총동창회에서 본교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상임총무 남세환 목사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서기 윤잠식 목사가 수고하였다. 이날 한수환 목사(총동창회 회장)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본문으로 "열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그리고 축도는 증경회장인 남태섭 목사가 수고해 주셨다. 또한 본교에 장학금을 주시어 감사증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용철 목사 방문



2019년 4월 24일(수)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울영문교회 이용철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병일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친교부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이용철 목사는 출애굽기 25장 18-22절을 본문으로 "보좌를 만드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본교에 본교발전기금을 주시어 감사장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임용택 목사 방문



2019년 4월 25일(목)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동명교회 임용택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승우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기획홍보부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임용택 목사는 디모데전서 4장 12-16절을 본문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서종대 목사 방문



2019년 4월 26일(금)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경산평산교회 서종대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오정환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1학년과대표가 수고하였다. 이날 서종대 목사는 요한복음 6장 16-21절을 본문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조삼수 목사 방문



2019년 4월 30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청도칠곡교회 조삼수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세홍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원우회 대의위원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조삼수 목사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과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구춘서 총장 방문



2019년 5월 1일(수)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한일장신대 구춘서 총장이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상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학생회 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구춘서 총장은 사무엘하 3장 1절을 본문으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유인상 원로목사 방문



2019년 5월 3일(금)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서일교회 유인상 원로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오정환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학생회 부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유인상 목사는 마가복음 9장 26-29절을 본문으로 "기도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전대동 목사 방문



2019년 5월 7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운산교회 전대동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홍 철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학생회 재정국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전대동 목사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본문으로 "예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금동 목사 방문



2019년 5월 8일(수)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김천평강교회 김금동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운만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학생회 기획국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김금동 목사는 마태복음 16장 13-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전상용 목사 방문



2019년 5월 9일(목)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김천백교회 전상용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김찬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전상용 목사는 창세기 1장 31절과 디모데전서 4장 4-5절을 본문으로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박충웅 원로목사 방문



2019년 5월 10일(금)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대구문화교회 박충웅 원로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세홍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신학과 학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박충웅 목사는 누가복음 10장 36-37절을 본문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장태운 목사 방문



2019년 5월 14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입량동부교회 장태운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병일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학생회 친교부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장태운 목사는 시편 57장 1-11절을 본문으로 "고난을 이기는 신앙"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김종신 목사 방문



2019년 5월 15일(수)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경주 주천양교회 김종신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승우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학부 대의원의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김종신 목사는 사도행전 16장 6-10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축도는 헤아림교회의 김진석 목사님이 해주셨다.

총신대 정일웅 전 총장 방문



2019년 5월 16일(목)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정일웅 총신대 전 총장이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이상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동아리 연합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정일웅 전 총장은 요한복음 21장 15-17절을 본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이종형 목사 방문



2019년 5월 21일(화)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금곡교회 이종형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홍철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기숙사 학생대표가 수고하였다. 이날 이종형 목사는 예레미야 12장 5-6절을 본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천주용 목사 방문



2019년 5월 22일(수)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정금교회 천주용 목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는 박세홍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대표기도는 총학생회장이 수고하였다. 이날 천주용 목사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본문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또한 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17대 총회 및 18대 신임 원우회장 선거

2019년 5월 29일(수) 금일은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총회 및 신규 원우회장과 총무를 선출하는 날이다. 총회는 17대 원우회의 일년 사업을 마무리하며 점검을 받는 날이고, 신규 원우회장과 총무 선거를 통해 다음 한 해를 이끌어 갈 원우회를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원우회 후보는 총 3팀이 후보로 나와서, 몇 주 전부터 열띤 선거운동을 하였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총회는 11시부터 김동원 원우회장의 사회로 순서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총회에 앞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총회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배를 위해 박은중 원우회 총무가 기도했고, 이상혁 학과장이 마태복음 13장 53-58절을 본문으로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앞으로 세워질 원우회를 위해 말씀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세워지고, 서로의 모습을 잘 안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평가 절하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누가 세워지든 한 마음으로 학교와 원우들을 위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당부하셨다.

예배를 드린 후 2부 총회가 시작되었다. 총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회원점명을 했다. 각 학년 과대들의 인원점검과 총무의 인원보고를 통해 총 156명 중 1학년 34명, 2학년 45명, 3학년 38명으로 117명 과반 출석으로 총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총무가 사업보고를 하고 회계가 회계보고를 하였다. 보고를 하는 중간에 여러 원우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대의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이 감사보고를 했다.

이후 도주찬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 투표를 진행했다. 먼저 원우회 회장과 총무 후보는 총 3팀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30초간의 마무리 발언을 실시 한 후, 투표를 하였다. 1차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117표 중에서, 1번 후보자는 41표, 2번 후보자는 52표, 3번 후보자는 21표, 무효표 3표로, 선거규칙상 다득표 된 1번과 2번 후보자에 한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였고, 2차 투표수 총 120표 가운데, 1번 후보자 49표, 2번 후보자 68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표결되어 2번 후보자인 이덕경 회장후보와 박정인 총무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자 이덕경 신임회장은 하나님 앞에서 원우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당선소감을 전하였다.

- 엄아론 편집장

학생신앙수련회 기도폭탄, 성령충만!



2019학년도 1학기 학생 신앙 수련회가 본교 인문관 4층 채플실과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수련회는 3월 19일(화)부터 3월 21일(목)까지 의정부 광명교회 담임이신 최남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첫째 날 최남수 목사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5절을 본문으로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 <성령의 불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다. 둘째 날 사도행전 3장 1-6절과 사도행전 2장 32-36절을 본문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생명 예수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다.

셋째 날은 사도행전 12장 1-5절과 사도행전 19장 8-12절을 본문으로 <기도폭탄>, <말씀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다.

본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받는 시간이 되었으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동참하는 신앙이 되기를 사모하는 대신대학교 학우, 원우가 되었다. 실제로 본 수련회를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마음을 얻은 학우/원우들이 많았으며, 앞자리에 나오라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학우/원우들이 앞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며,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가 아닌, 성령을 받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학우와 원우가 되기를 소망한다.

- 엄아론 편집장

2019 노진준 목사 특강



지난 4월 4일 목요일 오후 본교 본관 5층에서 노진준 목사님의 특강이 개최되었다. '현대의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번 특강은 현대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개인화가 심해짐으로 개인의 영성만 관리하면 된다는 현대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면서 특강을 시작하였다. 성경은 '우리'라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읽어야 하며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특강을 통해 세상과 같이 점점 개인의 영성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것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 신학과 기자 임호준



신대원 체육대회

신학과 체육대회

먹go! 마시go! 즐기go!

2019년도 대신대학교 체육대회가 5월 2일 (목) 대신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 되었다.

금 번 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탁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종목으로 구성이 되었다. 각 종목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었고, 특히 이어달리기 경기에서는 김찬영 교수님이 함께 참석하여 이어달리기 첫 주자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학과 열띤 응원전도 펼치고 치킨, 다과, 음료 등 다양한 간식도 준비 되었다.

축구 경기에서는 음악, 사회복지 팀이 승리하였다. 젊은 힘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농구 경기에서는 신학, 상담 영어학과 승리 하였다. 탁구는 남자단식, 남자 복식 종목에서는 신학, 상담 영어학과가 승리하고 여자 단식은 음악, 사회복지학과가 승리하였다. 줄다리기는 신학사회복지학과가 승리하였다. 인기 종목이었던 이어달리기 경기에서는 음악, 사회복지학과가 승리하여 음악, 사회복지학과가 최종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 TV, 테블릿 PC등 다양한 경품 추천으로

체육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경기의 우승 여부를 떠나 적극적인 참석과 열정적인 응원을 하며 바쁜 학업 와중에도 서로 더욱 하나 가 될 수 있는 체육 대회였다.

- 신학과 임호준 기자



음악과 체육대회



2019년 5월 2일 목요일에 대신대학교 본교 운동장에서 학부 체육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0시에 집합하여

예배로 체육대회의 문을 열고 가장먼저 농구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신학과와 음악과가 경기를 하였습니다. 함께 부딪히고 땀 흘리고 중간에 다치기도 했지만 다들 최선을 다해 재미있는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신학과의 승리로 농구게임을 마치고 선수들이 격려하고 축하하며 악수와 인사로 게임을 마쳤습니다. 그 후 바로 지하에서 탁구를 했습니다. 탁구는 여자 단식, 남자 단식, 복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여자단식은 2대0으로 음악과가 승리했고 남자 단식 2대1로 그리고 복식 2대0으로 신학과가 승리했습니다. 양팀 선수 모두 빠르게 움직이는 공에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으며 복식에서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축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뜨거운 땀방울에서 뜨거운 응원과 치열한 경기를 볼수있는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양팀 다 최선을 다해 뛰고 막고 치며 흥미진진한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게임 중 다치기도



하고 약간의 트러블은 있었지만 잘 마무리하고 음악과의 승리로 축구가 끝났습니다. 그 후 계주를 진행하였는데 민 호 기 교수님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다들 정말 잘 뛰었습니다. 계주는 음악과의 승리로 끝을 냈습니다. 그 후 단체종목인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단판으로 시작했지만 너무 팽팽하고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줘 결국 두번째 경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과의 승리로 줄다리기가 끝나고 많은 상품이 걸린 경품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상품이 너무 좋아서 문화상품권을 받은 학생들은 기쁨 반 실망 반으로 받아갔고 음악과 학생들이 갖고싶어하는 아이패드는 모두 다른 과가 가져갔습니다. 실망 중에 음악과 학생 조은(3) 학생과 이고은(1) 학생이 TV와 키보드를 받았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학우들도 함께 당첨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당첨되지 못해 또 아쉬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좋은 상품 키보드를 받은 이고은(1)학생은 상품을 받아가기 위해 노래를 하였습니다. 귀까지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최종 음악과의 우승으로 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학우들이 즐길 수 있어 더 좋았던 체육대회였고 학업을 미뤄두고 땀 흘리고 서로 경쟁하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 음악학부 이지웅 기자

사복과 체육대회



2019년 5월 2일 목요일 본 대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특별하게 음악·사복과 영문·신학 이렇게 나누었다. 우리끼리는 처음에 나갈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참석만 해달라는 부탁으로 참석할 겸 구경을 했다. 처음에는 다들 우리끼리 참석하는 것도 없어서 많이 지루하고 할 것도 없어서 우리끼리 돛자리에 앉아서 놀고 있었고 다른 부스에 정은영 교수님이 부스 운영하시는 곳에 방문도 하였다. 이렇게 놀고 있는 사이에 축구와 탁구 경기가 끝이 났다.

오전경기 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점심을 먹은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나가서 먹거나 시켜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 밥은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양이 적어서 조금 실망은 했지만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에는 자유 시간을 즐기면서 놀다가 시간이 되었을 때 영문·신학 음악과 축구경기가 있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4학년 선배 중 한 분이 그래도 후보에 올라갔고 마지막 경기 때 뛰어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축구경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한 명을 내보내서 응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쉽게도 줄다리기는 영문·신학이 이겼지만 우리 팀들도 다 잘해주고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모든 일정이 다 마친 뒤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추첨이 있었다. 상품은 대부분은 음악과가 가져갔지만 우리 과에서도 한 명 정도는 걸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추첨을 다하고 보물찾기 찾은걸 가져다 주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금은 놀랬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갔다. 이번 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가 참여율이 낮아서 응원을 많이 못했지만 다음 체육대회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모두가 안 다치고 건강하게 체육대회가 마무리 되어 좋았고 또 함께여서 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 사회복지학과 이하승 기자

때문이다. 각 교실에서 인원 체크와 안전교육이 시작되고 안전교육 후에 원우회 회원들의 통솔하에 버스에 탑승한 후에 비로써 MT를 간다는 실감이 났다.

울산은 평소에 가던 MT 장소보다 조금 먼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중간에 영천 자천교회를 탐방하고 점심 식사 후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스에서 보낸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져 학교에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버스 안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느낄 수 없는 사이에 영천 자천교회에 도착했다. 영천 자천교회를 탐방하고 한국의 기독교 사적 2호에 건물이라고 영천 자천교회 담임목사님이 설명해주셨다. 자천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한국 독립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자천교회에서 생활했음을 설명했다. 영천 자천교회에 탐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을 사랑했고 어떻게 한국 역사에 개입했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 있지만, 강대상에서는 따로 있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직접 강대상에서 보니 사실임을 알았다. 설명을 다 듣고 원우회에서 준비한 백송식육식당에서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준비되어 있었다. 따뜻한

신대원 MT

신대원에 비추어진 등불

3월 14일 목요일 9시,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본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원우들의 표정 속에서 분주함과 기대에 찬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손꼽아 기다린 신대원 MT가 있는 날이기



놓은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보고 탄성을 지르면서 암벽을 보고 있는데 암벽 사이에 약초를 캐는 분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시편 119:105) 안개로 인해 잘 보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 전체를 주장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저녁 집회는 친교부장 전도사님이 먼저 찬양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 후에 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담임목사님께서 이사야 6:1-8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선포가 있었고, 22시에 팀별로 만든 콩트가 시작되었다. 웃고 즐기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학년별로 모여서 자신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루가 저물어 MT 첫째 날을 마쳤다. 새벽기도회 시작으로 MT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원우회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고 우상혁 교수님의 설교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으로 향했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삶 이야기를 듣노라면 자연스럽게 숙연해진다. 그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창원해양공원으로 향했다. 전망대에서 보는 창원의 바다가 안개로 인해 잘 보이지 않은 날씨처럼 우리 인생길 속에서도 지금의 현실에서는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훗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기억하게 되는 MT가 되지 않았는가 한다.

- 신학대학원 전상철 기자

<함께하는 음악과 MT>



2019년 3월 28~29일 (목~금) 이틀간 각 학과가 MT를 다녀왔다. 음악과는 성주군 가천면에 있는 성주포천파크로 떠났다. 떠나기 전 오전에 심포니아홀에서 안전점검과 간단한 OT를 실시하였다. 전

학년이 다 같이 모이는 첫 행사인 만큼 다들 설레고 들뜬 모습이었다. 버스를 타기 전에 학교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출발했다.

펜션에 도착 후 방 배정을 하고 간단히 짐을 풀고 게임하기 편한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조별 모임시간을 잠시 가지고 조원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조별로 자유롭게 다과를 먹으며 자기소개 및 대화 등 친목시간을 가졌다. 상금 20만원을 숨겨놓고 상금 찾기 게임을 진행하였다. 미션을 클리어하면 상금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였고 모두 적극적으로 상금 찾기를 시작했다.

모두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중 교수님들이 방문하셨고, 교수님들 소개와 질문시간을 가졌다. 이후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다. 게임하느라 허기진 학우들은 부족함 없이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고 치열한 경쟁 끝에 한 조가 상금을 차지했다. 이후 저녁 레크레이션 시간 때 임원들이 준비해온 레크레이션을 했다.



점수를 매겨 점수를 많이 가져간 조에는 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장기자랑을 준비해온 학우들의 장기자랑시간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장기자랑을 보여 더 재밌는 엠티시간을 보냈다.

이후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며 취침했고 다음날 단체사진을 마지막으로 찍고 학교로 출발하며 MT가 끝났다. 1박 2일 동안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MT를 마무리했다. 모든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재미있고 의미있는 MT 시간을 보냈다. 잘 따라준 모든 조원들과 잘 이끌어준 조장,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하느라 고생한 임원들과 항상 옆에서 지도해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이번 MT도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다. 가기 전에 친하지 않았던 모든 학우들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된 이번 MT는 성공적이고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 음악학과 이지웅 기자

신학과 MT

2019년 신학과 신,편입생 MT가 구미 선산 은파재 영성 수양관에서 진행 되었다. 금년 신학과MT는 3월 28일(목)부터 29일 (금)까지 '너랑 나랑 예수님이랑M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교수님과 학우들이 함께하는 동전 줍기, 스피드게임과 같은 레크레이션이 있었고,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어색했던 학우들의 분위기가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감정카드와 이야기 만들기, 장기자랑을 진행하면서 학우들끼리 우애가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저녁에는 이병일 교수님이 말씀과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면서 신학생의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특별한 일정은 없었지만 아침식사외 쉬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신학과MT는 젊은 연령층과 학교 신,편입생 학우들의 참석률이 높아 생기와 열정이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금년 신학학회 이름인 '프렌즈'의 의미와 맞게 모두가 친구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 신학과 임호준 기자



인터뷰 | 정○○ (교회실용음악학부 3학년 실용보컬전공)

Q 이번 MT가 어땠는지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A 이번 MT 덕분에 신, 편입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수고한 임원들 덕분에 차질 없이 순조롭게 모든 순서가 잘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엠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엠티에 많은 학우들이 함께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학우들도 다음 엠티 때는 꼭 다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과 MT

죽을 때까지 먹여준다 이것은 먹방인가 엠티인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목·금요일 이틀간 대신대학교의 각 학과는 개별적인 MT를 다녀왔다. 사회복지학과는 경주에 MT를 다녀왔다. 첫날 떠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새로 온 새내기들과 함께 기대 반, 설렘 반 마음으로 MT가 시작되었다. 경주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원래 가려고 했던 보문단지엔 못 가고 경주 박물관으로 이동을 하였다. 날씨가 그리 좋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소풍 온 어린이들과 초등학생들도 보이고 외국인들도 제법 많았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첨성대까지 쪽 걸어가면서 유채꽃도 보면서 꽃에 계절인 봄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였다. 또한, 첨성대에서 버스를 타고 원래 가려고 했던 보문단지에도 도착해서 늦은 점심시간이지만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면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준 점심시간이 되어 사뭇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점심시간이었다. 식사 후에 긴 시간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곳은 날씨도 많이 풀리고 모여서 보문단지 근처에 구경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냥 하염없이 걷고 이야기하다 보니 피곤한 일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하루가 저물어 갈 무렵에 우리는 인원 점검을 하고 달동네로 출발하였다. 달동네에서는 옛날 70~80년대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도 구경할 수



있고 한국의 원동력이 되어온 그 시기를 직접 보고 구경함으로 우리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 당시의 달동네를 추억을 남기는 사진을 사진기에 마음껏 담았다. 달동네를 둘러본 후에 달동네 근처에 있는 한정식집으로 가서 맛있는 떡갈비 준비되어 감사함으로 먹었다. 학교에서는 부총장님과 총무처장님과 학생처장님께서 오셔서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격려를 해주셨고 밥을 다 먹고 숙소로 돌아가서 조금 쉬 후에 레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레크레이션이 시작할 때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잘 따라와 주어서 나름 만족스러웠다. 이번 MT를 통하여서 새내기들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 너무 좋았다. 다음 날에는 기사님의 추천으로 경주한식뷔페 식당에서 식사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1박 2일 일정 동안에 새내기들을 조금 더 알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귀하고 귀한 MT였다.

- 사회복지학과 이희승 기자

음악과 백천 꽃 피다



2019년 4월 25일 본교 운동장에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2019 백천꽃피다를 음악학부가 함께 참여해 무대와 행사를 했습니다. 본 행사는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 함께 어우러지며 서로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대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과 민호기 교수님이 함께해 더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길' '꿈'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동행' 을 불러 희망과 사랑의 말을 노래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불러 감동적이고 즐겁고 함께해 더 의미있는 무대를 가졌습니다. 장애인들과 지역주민에게 우리학교와 음악학부를 알릴수있는 좋은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제를 즐기고 무대를 하며 모두 하나 되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스에서 여러 아프리카 타악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재경 교수님의 악기로 새롭고 신기한 타악기 체험부스를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모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학생과 교수님까지 함께할수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번행사를 통해 하나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학교 학생 모두가 축제에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음악학부 이지웅 기자

대신대학교 정기연주회



2019년 5월 23일 7시에 교회실용음악학부 클래식 정기연주회가 본교 호수관 5층 세미나실에서 있었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온 공연인 만큼 많이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르간연주와 피아노연주 그리고 성악과 플루트, 클라리넷 등등 많고 다양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긴장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첫무대로 장예지 학생의 Toccata in D minor BWV 565 (J.S Bach) 를 연주 하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굉장히 좋은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다음 무대로 Arabesque No.1 (C.Deubussy)를 피아노 전공 신정현 학생이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박민수 학생의 성악 순서가 있었습니다. O Lord Be Merciful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와 Li Povcrotto (불쌍한 자) 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로 주슬기 학생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습니다. Sonata No.2 Op35 B flat minor I, Grave - Doppip movimento (F.Chopin) 를 연주하였는데 굉장히 감미로운 연주였습니다.

다섯번째 순서로 관악합주가 있었는데 Divertimento in D major K.136 I, Allegro 와 Jeux d'Enfants II, La poupée - Berccuse IV, Le Bal Galop를 연주했습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연주자들의 합주가 소름이 돋을정도로 멋있고 잘맞았던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긴장하고 불안해하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가면서 그 음악에 몰입해 연주하는 모습이 멋졌고 아직 학생이지만 프로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엔딩 무대로 대신 채플콰이어의 합창이 있었는데 음악과 뿐만아닌 다른 학과 학생도 함께한 유일한 무대여서 좋았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하나같이 잘 맞아 정말 멋진 엔딩 무대였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가득 찼네, 은혜 아니면, 언약의 노래 의 순서로 합창 했는데 마음을 울리는 합창이었습니다. 모든 무대 하나하나가 정말 학생들의 노력이 보이는 무대였고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많은 관중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무대가 끝난 후 연습한 만큼 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무대를 잘 끝내 후련해하며 올라가기 전에 긴장해 굳어있던 표정들이 다들 풀어져 기뻐 보였습니다. 정기공연은 매 학기 말에 한번씩 있습니다. 음악과뿐만 아닌 다른 학과 학생들도 음악과의 큰 행사에 오셔서 학생들의 연주를 함께 듣고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음악과 이지웅 기자

음악과 우수인 교수님 연/주/회



우수인 교수님 연주회를 음악학부 임원들과 학생들이 보러 다녀왔습니다. 4월 9일 7시반에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공연을 감상하며 더 배우고 자리에 함께해 교수님을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제자들이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며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해 다같이 많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음악학부 이지웅 기자

2019년 백천 꽃 피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어울릴 한마당

▶ 장소: 대신대학교 운동장 ▶ 날짜: 2019. 04. 25



2019년 4월 25일 금요일 본 대학교에서 경산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주최 행사가 열렸다. 이날 많은 장애인들과 많은 주민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행사에 참가해주었다, 체험하는 코스도 있었고 '바자회'를 열어 물건을 파는 곳도 있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이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약 80%의 선

천적인 장애는 유전적인 장애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나 일반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7%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 아직도 여전히 "차별을 느끼고 있다. 라는 의견이 73%인 것을 볼 때, 장애인과 일반 국민의 인식 차이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 안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할 것이다. 본인이 원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들에게 편견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을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할 때, 진정으로 그 장애인을 향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학과 이하승 기자

성폭력 예방교육 건강한 관계 맺기



지난 5월 17일 금요일 인문관 4층 채플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재인 부설 아인빌"의 노현진 강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주었다. 노현진 강사는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통합해서 강의 제목을 [건강한 관계 맺기] 정하였다고 하였다. 성폭력 중에서는 디지털

성폭력과 데이트 성폭력을 말씀 해주었다. 성희롱 같은 범죄가 어떻게 합리화가 되어 버리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고, 성희롱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족폭력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성폭력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거론하면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여성과 성폭력에 관한 사고를 확장 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하였다. 그리고 확장된 사고의 눈빛으로 보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역설하였다. 요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만 성추행과 성폭행의 가해자라는 것도, 이제는 고정관념이라고 말씀하였다. 한편으로 가정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모님께 말을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학원 선생님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말을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가 계속 변화됨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성폭력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하며, 우리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확한 의사 표현과 거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 이웃에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어떤 경우든 용기 내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당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드러내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나음을 강조하였다.

- 사회복지학과 이하승 기자



(Lv.Beethoven) 를 이 주 은 학 생 이 연주하였는데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웅장한 곡을 잘 살려서 연주를 했습니다.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일곱번째 무대로는



신정현 학생의 Ballade No.1 Op.23 (F.Chopin) 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무대로 송예지 학생이 Sonata Op.10-3 No.7 (Lv.Beethoven)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로 김다운, 이주은, 김윤정, 신정현 학생의 연주가 있었는데 넷이서 한 피아노로 연주한다는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무대였습니다. Galop Marche For 8

Hands (A.Lavignac) 을 연주하였는데 넷이서 맞춰서 한국을 함께 연주한다는게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가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해온 노력이 잘 느껴지는 연주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무대였습니다. 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과 많이 준비했는데 실수해서 속상해 하는 학생들 좀 더 잘할 결 하는 후회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라는게 느껴졌습니다. 관중들도 많이 왔는데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좋은 공연으로 바쁜 삶을 잠시 내려두고 연주회를 와서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주회에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 관중들이 함께 와서 음악을 감상 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음악학부 이지웅기자

음악과 행사 클래식 피아노 연주회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7시 대신대학교 클래식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한영아트센터 안암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무대로 김지은 학생의 Nocturn Op.9 No.2 (F.Chopin) 을 연주하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성있는 클래식 곡을 잘 연주해서 듣기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두번째 무대로 권소연 학생이 Etude Op.10 No.1 (F.Chopin)을 연주했습니다. 세번째 무대로 Sonata Op.7 No.12 (Lv.Beethoven)를 김윤정 학생이 연주하였습니다. 아름답고 감미로운 무대였습니다. 네번째 무대로는 김다운 학생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Etude Op.10 No.12 (F.Chopin)을 연주하였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연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듀엣무대로 김성은 학생과 주슬기 학생이 연주하였습니다. Liebesfreud & Liedesleid (F.Kreisler)를 연주 하였는데 둘이 합이 잘 맞는게 너무 신기하고 듣기 좋은 무대였습니다. 다음 무대로는 Sonata Op.12 No.8 I, Grave

신대원 성막체험

따스한 햇살이 내리는 5월 2일 실제 크기와 같은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성막 체험을 가기 위해 모였다. 간단한 프리핑과 설명을 듣고 버스에 올랐다. 긴 하루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경기도에서 만두를 잘 만드는 집이라고 자랑에 사랑을 한 곳에 가기 위해서 차는 하염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곳은 대기자가 많아서 예약해도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다른 손님들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 가야 하는 긴박감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 촉박함과 긴장감으로 인해 버스 안은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침묵만 흘렀다. 2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휴게소에서의 잠깐의 휴식과 함께 다시 차는 달리고 또 달렸다. 얼마 후 경기도에서 만두를 잘 만드는 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준비된 테이블에서 만두를 먹기 시작했다. 부담감을 가지고 긴



여정을 올 만큼의 시간을 보답이라도 하듯이 음식은 맛깔나게 맛있었다. 식사 후 서로가 서로에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콘서트에 올릴 사진이기에 많은 장면들이 연출되었고, 웃으면서 서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기에 소리가 연이어서 터져 나갔다. 얼마 후에 다시 차로 복귀하고 다시 차는 하염없이 달리고 달려서 경기도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 광은기도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사진 찍는 것을 금지하는 말과 함께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복도에 전시된 각종 자료와 그림들을 제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그곳에 그림들을 해석하면서 구경하는 시간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흘러갔다. 얼마 후에 안내원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위에는 축소형과 실제 모형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궁금증이 더욱더 컸다. 2층에서는 단연 축소형으로 된 모형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실제 크기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고 성막에 들어가니 실제 크기는 의외로 생각보다 작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안내자는 그곳에서 어떻게 양을 잡았는지를 설명을 듣고 양은 털을 깎던지 칼을 찔러도 양은 가만히 있다는 설명을 하고는 후에,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십계명과 만나·아론의 지팡이가 그곳에 있었다. 그곳을 감탄하면서 본 후에, 삼삼오오 모여서 사진콘서트에 대한 사진을 찍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밖은 꽃이 만발하였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피곤한 학우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서로 모여서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버스에 올라 휴게소에서 식사를

후에 논문에 대해서 이곳, 저곳에서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소소한 삶의 여유를 보내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승우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대신대학교의 자랑이신 성서 언어 연구소 박윤만 교수의 간단한 소개 후에 “기원후 360년 이전의 사람들의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찾아서 - 역사적, 신약 신학적 접근-”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래리 후타도 (Larry W, Hurtado) 저서인 두 권의 책을 제시하였다. 필박을 받고 있음에도 기독교인들은 증가했으며,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확장했고,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위협에 대한 자료는 『폴리갑의 순교』나 저스틴의 글로 그 당시 사회의 기독교 이해를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음을 제시했다. 가정과 마을 국가의 모든 체계가 다신교적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에서 유일신을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개종자 자신에게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고립을 초래하는 일이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일이지만 그들이 압박과 필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예수를 주로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가르친 영생 때문이다. 오직 기독교만 전하고 있었던 구원관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도록 만든 중요한 동력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논문발표가 끝나고 정용성 교수의 논평하는 시간을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끼리, 끼리 모여서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은 전



충신신대원 이한수 교수님이 “하나님의 의와 아브라함 언약: 로마서 1-4장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케제만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것에 내재된



동력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논문발표가 끝나고 정용성 교수의 논평하는 시간을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끼리, 끼리 모여서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은 전

시작했다. 그리고 하염없이 버스는 달리고 달려서 20시경에 학교에 도착했다. 오늘의 성막 체험은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미흡한 부분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곤한 학우들을 위해서 맛있는 점심과 봄의 향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신학대학원 전상철 기자

문제점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대안을 모색하고, 로마서 1-4장에서 전개되는 보편성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구원사와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의 성취가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만 아니라 아담 후손 전체에게 미친다는 점을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대신대 오승환 교수가 논평하였다.

모든 시간이 끝나고 기도로 학술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깊이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는 학술대회였다.

- 신학대학원 전상철 기자

연극 동아리 튼싹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오후 6시30분에 대신대학교 동아리인 연극동아리 튼싹의 연극연습에 함께해 보았습니다. 음악관 3층 317호에서 다같이 모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기에 임해 더욱 보기 좋았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연습을 하며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정도의 짧지 않은 연습시간에도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연극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다같이 식사도 하고 친목도 다져지고 학업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연극을 하며 성경을 표현해내고 학과에 상관없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더 좋은 모습이 기대됩니다. 다들 정기적으로 공연 무대도 가지고 있고 어!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단체와 함께하는 동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더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알고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좋은 연극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음악과 이지웅 기자

2019

춘계학술세미나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대신대학교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춘계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병일 교수의 사회로 시작해서 대신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로 학술세미나가 시작됨을 알렸다.

이번 춘계학술세미나에서는 세 개의 논문발표가 준비되었다. 구약 부분에서는 합동신학대학원 김진수 교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다시 생각하는 창세기 6:1-4”이라는 하나님이 아들과 딸들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구스타브 클로젠의 보편적-인간적 해석과 다르지 않음을 밝혔으며, 난해한 부분을 기존의 이론들과 천사 이론 · 왕 통치자의 이론 · 셋 자손의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전제한다”는 일반이론을 발표했다. 논문발표가 끝나자 대신대학교 이상혁 교수가 논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논문 발표가 끝나고 대신대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와 간식을 먹었다. 식사

소송본문(고전 6:1-11)에 대한 바울의 윤리적 이해: 고린도전서 5:1-13과 6:12-20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오정환 교수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신앙적인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자로서의 행동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자는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함(doing)은 언제나 존재의 가치(being)를 깨달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¹⁾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흥길은, 바울 서신은 곳곳에서 윤리적 진술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교회 공동체적 윤리를 다룬다고 주장한다.²⁾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전서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 앞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소송 본문'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6장 1절-11절을 '소송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강조점을 두어 살펴봄으로써,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송 본문을 전후의 문맥(고전 5-6장) 안에서 이해한다면, 바울이 단지 소송의 가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본문을 언급하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 즉 윤리적 권면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I. 고린도전서 5-6장에 나타난 세 가지 윤리적 문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윤리적 권면'이라는 바울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좋은 예들로 사용될 수 있다.³⁾

바울은 고린도전서 5-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과 관련된 세 개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5장 1-13절에서는 근친상간의 문제, 6장 1-11절에서는 성도 간에 벌어진 소송의 문제, 그리고 6장 12-20절에서는 다시 음행의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는데, 5장 1-13절과 6장 12-20절은 동일하게 성적(음행)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본문 사이에 소송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놓여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전개에는 바울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1. 고린도전서 5장 1-13절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윤리적 문제

고린도전서 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여자를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비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경솔히 여기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음행'의 문제는 1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신앙 공동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공동체 내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일을 행한 자를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선이다. 바울은 2절에서 이 일을 행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의 작은(μικρός) 일로 취급해버렸다.⁵⁾ '근친상간'의 문제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한다.⁶⁾ 심지어, 유대법이나 이방의 로마법에서도 허용되지 않았다.⁷⁾ 그렇다면 신앙을 삶의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욱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교회는 이 불의한 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이에 대한 교회의 적절한 태도로 당사자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교회에서 일어난 심각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사자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준다.⁸⁾ 그러나 당사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 바울은 그들에게 교만하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지혜로운 자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들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신앙 공동체가 지켜야 할 거룩성을 행한 자를 보고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고도 애써지지 않고(2절),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하고 있다(6절). 죄가 점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즉,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경고의 대상을 세속화를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로 제한시키고 있고, 공동체 내에 있는 자들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12절에서 말하고 있다.

결국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실패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의 모습이다.

2. 고린도전서 6:12-20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윤리적 문제

음행과 관련하여 6장 후반부(12-20절)에서 또 다른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음행은 창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로 나타난다. 고린도교회는 여기서 또 다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성적 관계를 음식을 섭취하는 몸과 같은 관계로 간주하면서 성적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였다.⁹⁾ 바울은 여기에서도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드러낸다. 그는 본 단락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전 6:12)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바울은 이를 위해 우리의 몸과 음란의 관계를 13절에서 언급하면서 우리의 몸은 음란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까지 설명한다(15절). 이는 그리스도인이 창녀와 합할 수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처럼, 만약 누군가 창녀와 합하면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¹⁰⁾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합당치 못한 모습임을 말한다. 바울은 19절에서 보다 근원적인 대답에서 창녀와 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곧 "성령의 전"임을 주시시키면서 육체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말한다.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20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창기와 몸을 합하는 행동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행동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자유'의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¹¹⁾ 오히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호할 때 그 가치가 더욱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3. 고린도전서 6:1-11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윤리적 문제

고린도전서 6장 1-11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된 두 이야기와 연관이 없어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두 이야기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 본문은 음행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주제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본 단락에서 바울은 성도 간에 일어난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다. 소송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만 2절에서 언급하고 있다.¹²⁾ 이 사건을 통해서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소송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이 믿는 자들, 즉 성도 간에 발생했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신자들이 신앙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일 - 바울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 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성도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본문 안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견해는 부정적임에는 틀림이 없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그들의 정체성이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한 자이며, 천사를 판단할 자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작은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분명히 세상의 시각보다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절을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나고, '속는 것'이 나고 그들에게 말하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라고 그들의 행동을 꼬집고 있으면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대상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형제'임을 주시시킨다. 헤이즈(Richard B. Hays)는, 바울이 하나님께의 가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과는 구별된 모습이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본다면, 소송에 연루된 자들은 소송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 버렸는데 있어서 동일하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가리켜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글 성경에서 '허물'로 번역된 ἥτιμα(헤티마)는 패배를 의미하고, '뚜렷한'이라고 번역된 ὄλας(올라스)는 패배의 의미를 더욱 확대시켜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¹⁴⁾ 즉, 본문 안에서 '뚜렷한 허물'은 형제간의 소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완전하게 패배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불의의 모습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송의 시작과 더불어 이미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바울의 시각에서 이런 그들의 모습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실패한 자들일 뿐이다.

III.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안에서 본 소송본문의 역할

지금까지 살펴본 세 본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 모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개된 세 사건들은 모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적합한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세 본문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6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소송 본문의 역할과 의미이다. 5장과 6장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 5:1-13 음행의 문제 I (근친상간)
- B 6:1-11 소송의 문제 (믿는 자들 간의 소송)
- A' 6:12-20 음행의 문제 II (자신의 몸을 창기와 합함)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윤리적인 시각에서 각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소송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콜린스¹⁵⁾와 탈버트¹⁶⁾는 고린도전서 5-6장을 ABA'의 패턴을 가지고 구조를 분석하면서, 특히 B 부분이 가지는 기능적인 역할에 주의를 기울인다.¹⁷⁾

이러한 콜린스의 분석을 고린도전서 5-6장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먼저 A에 해당하는 부분인 고린도전서 5장 1-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 일반적인 생각을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난 '근친상간'의 사건을 통해 기술한다. 그리고 A'에 해당하는 부분인 고린도전서 6장 12-20절에서 바울은 A 부분에서 다루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시 다루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음행의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령의 전으로 언급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비윤리적 모습을 취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B에 해당하는 고린도전서 6장 1-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실패(패배)했음'을 책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참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야 하지만 소송 본문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이미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의 모습 또한 잃어버린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소송 자체에 무게를 두어 소송 가부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송 본문 자체만을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들 간의 소송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한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소송 본문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고린도전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음을 볼 때,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이 소송 자체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넓은 맥락 안에서 소송 본문을 볼 때, 소송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1세기의 고린도교회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공동체에게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한다.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1) 박성환, "성품윤리와 설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Charles L. Campbell의 설교학적 통찰력을 중심으로", 『설교한국』 제3권 (2011): 32.
2) 장흥길, 『신약성경윤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132.
3) Frank J. Matera, 한홍식 역, 『신약 윤리학: 예수와 바울의 유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318.
4) 조병수, 『고린도전서 어떻게 읽는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15), 88.
5)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1차적 권면(또는 훈계) 대상은 음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묵과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6) Olivia F. Robinson, The Criminal Law of Ancient Rome (London: Duckworth, 1995), 54-55.
7) 심상범, 『바울의 영성: 떨림(십자가) · 울림(윤리) · 어울림(공동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111.
8) 조병수, 『고린도전서 어떻게 읽는 것인가?』, 93.
9) Matera, 『신약 윤리학: 예수와 바울의 유산』, 319.
10) 김세운 교수는 창세기 2장 24절에 근거해서 "한 몸 됨" 원칙을 말한다. 즉, 성적 결합은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므로 창기와와의 성적 결합은 곧 창기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세운,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7), 119.
11) Anthony C. Thiselton, 권연경 역, 『고린도전서: 해석학적 & 목회적으로 바라 본 실용적 주석』 (서울: SFC, 2011), 175.
12) 소송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다. (1) 금전적인 문제를 소송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 William F. Orr & James A. Walther, 1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Garden City: Doubleday, 1976); Gerd Theissen, The social setting of Pauline Christianity (Sl.: T&T Clark, 1982); Wayne A.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Reginald H. Fuller, "First Corinthians 6:1-11: An exegetical paper," Ex Auditu 2 (1986), 96-104; V. George Shillington, "People of God in the courts of the world: A study of 1 Corinthians 6:1-11," Direction 15(1) (1986), 40-50. (2) 성적(음행) 문제로 보는 견해, John H. Bernard, "The Connexion between the Fifth and Sixth Chapters of 1 Corinthians," Expositor 7(3) (1907), 433-443; Ernest Evan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Oxford: Clarendon, 1930); Charles H. Talbert, Reading Corinthians: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1 and 2 Corinthians

(New York: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87); Craig S. Keener, 1-2 Corinth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Joseph A. Fitzmyer, First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3) 성적 부도덕에 근거한 지침문 문제를 소송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 Peter Richardson, "Judgement in sexual matters in 1 Corinthians 6:1-11," NvoT 25(1) (1983), 37-58; Elisabeth Schüssler Florenza, 1 Corinthians (New York: Harper & Row, 1988); Will Deming, "The unity of 1 Corinthians 5-6," JBL 115(2) (1996), 289-312.
13) Richard B. Hays, First Corinthians (Louisville: John Knox, 1997), 95.
14)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436.
15) Collins, First Corinthians, 225.
16) Talbert, Reading Corinthians, 12.
17)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특히 B에 해당하는 부분은 키아스틱 구조의 구성요소로서 전체 구조의 수사학적인 목적을 제공한다(Collins, First Corinthians, 160). 즉 고린도전서 5-6장 안에서 B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 본문은 고전 5-6장 이해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발전기금 후원현황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대학교는 이 도움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지역 교회 부흥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학문·경건·사랑
대신대학교
 DAESHIN UNIVERSITY

개혁신학과 신앙의 요람

대신대학교 발전위원회

후원계좌번호 · 농 협 : 761-01-144235 (예금주 : 대구신학원)
 · 농 협 : 301-0144-8182-21 (예금주 : 대신대학교)

※ 제 공 : 대신대학교 발전위원회
 ※ 여러분의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를 원하시면 대신대학교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 053-810-0808

▶ **후원금 현황 (참여기간 2018. 09 ~ 2019. 02)** ▶ **발전기금 총액 : 254,593,010원**

교 회

가음교회 가창교회 경산교회 경산삼성교회 경산성광교회 경애교회 계당교회 고락교회 고산중앙교회 공항교회 광명교회 구미서부교회 구일교회 길안중앙교회 나눔과섬김의교회 낙산교회 남원교회 내일교회 달서교회 대구남부교회 대구대동교회 대구대영교회 대구동부교회 대구동산교회 대구동성교회 대구동신교회 대구목자교회 대구부광교회 대구북일교회 대구서문교회 대구성일교회 대구수산교회 대구시온교회 대구신일교회 대구영신교회 대구칠곡중앙교회 대구평안교회 대구한샘교회 대도교회 대명교회 대봉제일교회 대성교회 대울교회 대흥교회 동령교회 동막교회 동행교회 드림교회 만성교회 박사교회 반야월서부교회 반야월중부교회 봉덕교회 북성교회 사수교회 상모교회 새에덴교회 서대구교회 서성로교회 설화교회 성덕교회 성도교회 성문교회 성서교회 성서중부교회 성주중앙교회 소망교회(강만중) 수정교회 안심교회 약목평안교회 열린문교회 영주교회 영천동부교회 영천호당교회 예일교회 오천제일교회 오촌교회 온세상교회 와촌교회 왜관교회 울산반석교회 울산서현교회 울산한사랑교회 은평교회 의성교회 의송교회 이가교회 이서교회 일광교회 자인제일교회 장대교회 점촌제일교회 주안약교회 진주성남교회 창원벨엘교회 청도대성교회 청도수야교회 청도이서교회 초곡교회 큰숲교회 탐리교회 태평교회 파동창대교회 포항지구촌교회 푸른초장교회 풍기제일교회 행복한우리교회 회원성명교회 황금교회 효목교회

노회 및 단체

(주)위드텍 (주)지아이화물 (주)창대건설 BWIL(기독교동아리) 경청노회기독교청장년면려회연합회 경동노회 김천노회 나눔광고 대경노회여전도회연합회 대구극동방송 대구노회 대구동노회 대구수성노회 대구수성노회남전도회연합회 대구수성장로회 대구중노회 대구지역장로회연합회 목정한정식 배은영(대경CE) 백자산식육식당 사랑의쌀나누기운동본부 신대원12기동기회 신대원13기동기회 안동노회 영남지역장로회 총동창회

개인 기부자 명단

Ajay Kumar ariyal 갈경순 강경미 강경숙 강경희 강계태 강광술 강명애 강병수 강복례 강순금 강영균 강영숙 강원진 강은수 강은전 강이환 강정헌 강창미 강창진 강필옥 강혁주 강현숙 고희환 고정미 고주석 고희림 공귀숙 공동현 광명숙 광무생 광순석 광인현 광태연 광해정 구금화 구명보 구본수 구본익 구서균 구자덕 구정순 구형숙 권경도 권기조 권명희 권병복 권사무엘 권성민 권수형 권순자 권영미 권영복 권정에 권정열 권진혁 권태범 권태웅 권해연 권현숙 권현주 권형철

대신대학교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인재양성의 요람!

입시일정 안내

2020학년도 학부수시모집	원서접수 2019. 9. 6(금) ~ 9. 10(화) 전형일 2019. 10. 21(월)	2020학년도 학부정시모집	원서접수 2019. 12. 26(목) ~ 12. 31(화) 전형일 2019. 10. 21(월)
2019학년도 대학원후기모집	원서접수 2019. 6. 10(월) ~ 6. 12(수) 전형일 2019. 6. 24(월)	2020학년도 대학원 및 신대원모집	원서접수 2019. 11. 18(월) ~ 11. 21(목) 전형일 2019. 12. 2(월)
2019학년도 목회신학원 후기모집	원서접수 2019. 7. 22(월) ~ 8. 21(수)	2020학년도 목회신학원 전기모집	원서접수 2020. 1. 20(월) ~ 2. 19(수)

모집학과 안내

| 학 부 | 신학과 / 사회복지학과 / 상담영어학부 【상담심리전공, 영어전공】
교회실용음악학부 교회음악전공 【성악, 오르간】
기 악 전 공 【피아노, 관악】
실용음악전공 【워십리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실용작곡, 재즈피아노】
※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추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신학과(Th.M.) / 영어영문학과(M.A.) / 사회복지학과(M.A.) / 음악학과(M.Mus.)
박사과정
신학과(Ph.D.)

| 신학대학원 | 신학과(M.Div.)

대신대학교 부설

| 목회신학원 |

| 국제교류교육원 |

